

2024 년 1 월 5 일 “(주님을 아는 지식 1) 믿음의 귀감”(히 12:1-2)

올해 교회의 표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알고 함께 걷는 교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속성과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귀감)이 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이심을 선포합니다(2 절). 믿음의 핵심적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 믿음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히 12:1-2 절은 11 장(구약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의 결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주시기로 약속한 유업을 얻은 길을 말해줍니다.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도 약속의 상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을 넘어 받을 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39 절 '...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2] 유업의 상을 얻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업의 상을 완벽하게 얻으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2 절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행하신 후에 받을 기쁨(상, 유업)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 + "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유업의 상을 믿고 좇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오른편, 즉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고 상을 기대하신 것이 낮은 영성이며, 세속의 상업적인 거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인다면 세속적 물질관으로 본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물질보다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빌 4:1 "...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살전 2:19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내가 받을 유업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상)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받을 상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특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사랑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은 상으로서 이 나라의 최고의 보좌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가르침과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목장 식구들은 이 땅에서 주신 선물일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받을 면류관이며 기쁨의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적 유업의 상의 의미를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귀감이 되셨는지 열거해 보십시오.
2. 믿음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보상으로 약속하신 유업(상)의 쟁취와도 연관됩니다. 나는 어떤 유업의 상을 기대하며 좇고 있습니까?